

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의 기업 맞춤형 재생에너지 공급 추진

- 스마트그린산단 재생에너지 공급사업 현장중심 설명회로 기업참여 독려 -

□ 새만금개발청(청장 김경안)은 지난 6월 20일(목)~26일(수)까지 ‘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’ (이하 ‘스마트그린산단’)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‘스마트그린산단 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설명회’ (이하 ‘설명회’)를 가졌다.

○ 이번 설명회는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관리 주체인 새만금개발청(이하 ‘새만금청’)과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, RE100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일일이 찾아가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현장중심으로 진행하였다.

□ 특히, 설명회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중심의 기업맞춤형 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추진방향 등을 소개하고, RE100 이행에 관한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
○ 새만금청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, 공장 지붕 등 산단 내부의 태양광 발전 방안, 고효율에너지 설비 설치 같은 기업 실정에 맞는 RE100 이행 및 탄소저감 방안을 안내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재생에너지 공급 전용 전력망 구축* 등 인프라 지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.

* 재생에너지를 발전소에서 수요기업까지 직접 연결하기 위한 전선로, 에너지저장장치 등

○ 새만금개발공사는 전문기업 중심의 SPC(특수목적법인) 사업 구성 등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 구조와 세부 추진 일정, 예상 공급 단가 등 주요 내용과 RE100 관심기업의 사업 참여방안 등을 안내하였다.

○ 특히, 기업대상의 맞춤형 1:1컨설팅을 통해 재생에너지 안정성, 기업 개별 실정에 따른 공급용량·계획 등을 안내하여 수요기업의 공급한 부분을 해소하는 등 서로 간에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.

□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중 5·6공구를 조성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기반시설과 스마트기술을 통한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화·탄소 저감을 지원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* 하였으며, 새만금청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내 온실가스(CO₂) 27% 감축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* 새만금 국가산단 5·6공구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고시(국토부, 2022년)

<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구축사업 개요 >

- (예산) 235억원(국비 100%, 기후대응기금)
- (사업기간) ‘22~’26
- (주요사업) 에너지플랫폼 운용 등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건립, 재생에너지 공급 전력망 구축, 에너지저장장치(ESS) 설치, 스마트시설(스마트가로시설 등)구축 등

□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“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함은 물론, 지역성장 견인과 기업의 ESG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.” 라고 강조하면서,

○ “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새만금개발공사,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기업에게는 행정적·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개발전략국 신산업전략과	책임자	과 장 홍지광 (063-733-1360)
		담당자	사무관 이재호 (063-733-1365) 주무관 박용선 (063-733-1370)